



## ‘짜구려 은총’ vs ‘참된 은총’

+ 찬미예수님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만행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이며 신학자셨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쓰신 옥중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안락을 다 누리고, 죽어서는 구원의 은총까지 받겠다는 ‘짜구려 은총’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 디트리히 본회퍼 -

신앙인인 우리는, 세상 온갖 안락을 다 누리고자 합니다.  
재물도 넉넉히. 건강도 무탈하게. 마음의 평화까지.  
그리고 또 죽어서는, 구원의 은총과 천국까지 차지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셨지,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누라고 하셨지, 움켜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치라고 하셨지,  
탐욕 앞에 눈 질끈 감고, 이기심 앞에 모른척 고개 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

우리들의 신앙이, 끝내 세상 단물도 다 빨아먹고,  
천상의 열매마저 탐하는, 그런 ‘짜구려 은총’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며, 가난한 사람들을 품지 않는, 그야말로 ‘짜구려 은총’이나 탐하는 못된 신앙 말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는, ‘참된 은총’을 구하는 착한 신앙이길 꿈꿉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 | 사람동본당 주임

###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잠언 31,10-13,19-20,30-31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1테살 5,1-6  
복        음      마태 25,14-30 또는 25,14-15,19-21

##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표징이며 우리 공동체 삶의 버팀목입니다. 이 거행이 교회의 사목 안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날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고자 일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빈곤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지경까지 불어나,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도움과 원조와 연대를 구하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이 너무도 큼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살고 가난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님께 다시 한 번 얻고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전 주일에 주님의 식탁 둘레에 모입니다.



통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는 반면, 신체적 특질을 삶의 우선 목표인 양 찬양합니다. 가상 현실이 실제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점 더 쉽게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찰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되지만, 우리는 삶과 피를 지닌 그들을 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성가셔하며 외면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날마다 동반자가 된 조급함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른 이를 돌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참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마다에게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위탁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선을 베풀도록 성금을 내는 것도 관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자선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복음의 현실주의로 특징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증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구약성경 본문이지만 사로잡는 힘이 있고 지혜가 가득한 토빗기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저자의 메시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정생활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토빗은 긴 여행을 앞둔 아들 토비아를 껴안습니다. 나이 든 토빗은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영적 유언’을 남깁니다. 토빗은 니네베로 유배를 왔고 이제는 눈까지 멀게 되어 가난의 이중고에 놓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 이름의 뜻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로 또 좋은 아버지로 아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따라야 하는 바른길을 증언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토빗 4,5)

올해는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테레사 성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L'Histoire d'une âme)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애덕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 견디며, 그들의 약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극히 조그만 덕행까지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임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하여야 하는 애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Ms C, 12r)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특히 섬세하게 헤아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풍족한 생활양식을 택하라는 압박이 커져가는 반면,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하곤 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두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고

우리의 집인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이가 애덕의 빛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테레사 성녀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신적인 면모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 교구 제27차 성장 꾸르실료



교구 제27차 성장 꾸르실료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장 꾸르실료에는 23명이 참석하였다. 차수 담당 사제는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마산가톨릭교육관장), 차수 회장은 주성 알렉산델(삼계본당) 그리고 12명의 봉사자가 함께하였다.

##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시편 1,2)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다. 아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편 1,2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어진 늘 푸른 나무와 같이 하느님 말씀에서 수액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느님 말씀은 씹고 또 씹으며 되새길 때 비로소 내 삶의 자랑분이 된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말씀을 스승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삶의 지혜와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매주 모이는 교구 내 본당 곳곳의 성경공부반, 그 가지와 뿌리는 나날이 성장하며 말씀 안에 머물러는 사람들의 풀밭이 되고 있다.

거제, 마산, 진주, 창원지구 본당 여러 곳의 성경공부 수강생들,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성경교육봉사자들, 그리고 양성 교육 중인 봉사자들... 2023년 1,2학기 동안 이천 명이 빛 속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본당 설립 30주년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번 학기 9월부터 새로 개설된 진동본당 성경공부반에는 30여 명이 모여 말씀으로 거듭나는 본당이고자 한마음이 되어 있다. 또 코로나의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다 다시 문을 연 창녕본당, 칠원본당, 반송본당 공부반에도 활기가 가득하다. 거제의 끝자락에 위치한 하청본당의 성경공부반 분위기는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형제애와 사랑이 넘친다. 작은방에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응답하는 마음들이 교회 성장의 겨자씨가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못자리가 될 것이다.

사목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성경사목도 본당 신부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신자들이 호응하며 나래를 펼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려는 바람이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성경교육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본당 신부님의 얼굴에 보람이 번지며,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어 교구 곳곳에 말씀의 씨가 널리 뿌려지길 믿고 희망한다. 말씀의 씨를 함께 뿌릴 동역자인 봉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공부반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성경사목부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시편 1,3)





#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 마산교구 전사前史 28

### 통영지역 교우촌 (1)

파리외방전교회는 1658년 창설된다. 당시 아시아지역 선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했고 선교사들이 무역정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에 교황청은 순수 선교 단체를 원했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수도회가 파리외방전교회였다.

그들은 선교지 언어를 직접 배우고 가르쳤다. 선교지에 파견되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지 교회를 조직한 뒤에는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해 그들에게 모두 맡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 파리외방전교회 모토motto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한 파리외방전교회는 1841년부터 매년 한 권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세계 각국에 파견된 외방전교회 신부들의 활동상황을 종합한 연보年報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전국에 흩어진 사제들이 주교에게 보고서를 보냈고 주교는 이를 종합해 다시 파리 본부에 보냈다. 콩트랑뒤(Compte Rendu)라 불렸던 보고서다. 교구연보敎區年報라고 번역되어 있다. 조선에 관한 기록은 1846년부터 등장한다.

콩트랑뒤 1895년 판에 통영지역 교우들에 관한 뒤편 주교의 기록이 있다. “저는 거제도에서 항상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흥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개종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략, 울해(1895년)는 기쁘게도 우리 종교가 통영統營과 동래東萊에도 뿌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부산 교구사 자료집 1권 324면 참조)

위의 기록이 통영 교우촌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들은 1895년 어떤 형태로든 신앙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루어 보아 훨씬 이전부터 모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영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다. 통영 소식을 알려준 선교사는 우도(Oudot 吳保祿) 신부다. 당시 그는 부산본당 두 번째 주임 신부였고 통영과 거제도는 그의 관할구역이었다.

우도 신부 자신의 통영 기록은 1898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교우 9명, 영세자 5명, 사규 고해자 3명의 작은 공소였다. 뒤편 주교 기록은 1895년인데 우도 신부 보고서는 3년 뒤에 나타난 셈이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우도 신부는 1893년 여름부터 고성과 거제도를 방문하고 있었다. 통영에도 교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갔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곤 당시 상황을 뒤편 주교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도 신부는 통영 교우들을 한곳에 모아 판공을 치르지 못했다. 교우 대부분이 육지의 통영이 아니라 인근 섬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도 신부는 황해도로 발령 나서 떠나게 된다. (1898년 4월)

이동을 예감한 우도 신부는 통영지역 교우들을 처음으로 한곳에 모았다. 외딴섬의 교우들까지 오게 한 것이다. 이것은 1898년 보고서다. 1898년 보고서는 1897년 6월부터 1898년 5월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우도 신부가 통영 교우들을 모아 첫 판공을 치른 것은 1897년 성탄 판공이었을 것이다. 통영엔 언제부터 교우들이 있었을까? 가장 오래된 자료는 리텔(李福明) 주교가 1861년 입국 때 지녔다는 교우촌 지도다. 지도엔 당시 교우촌 153개가 분포된 지역이 나온다. 마산교구엔 8곳.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소촌(문산), 칠원(구산), 의령이다.

1861년이면 병인박해 5년 전이다. 기록보다 앞서 남해안엔 분명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박해에 떠밀려온 피난 교우들이다. 당시 임금은 철종이었다. 1849년 보위에 올랐지만 왕권은 추락했고 세도정치가 전국을 휘젓고 있었다. 살길이 막연했던 민중은 떠돌기 예사였고 피난 교우들 역시 이 틈에 끼어 해안가 정착을 시도했던 것이다.

# 시집 『파주기행』은 신앙기행

강희근 요셉 시인/ 가톨릭문인회

시집 『파주기행』(2023.8 황금알)은 아내의 수술에 관련된 시집 제명이다. 아내가 서울 S병원의 수술 날짜를 받아 놓고 30일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딸과 사위가 사는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네도 그곳에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딸 하나 키우고 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난 뒤, 모처럼 근교 생활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갓 이사한 터여서 두서가 없었다.

그때 쓴 작품은 6편으로 ‘문산역’ ‘출판단지’ ‘사임당의 묘’ ‘프로방스 마을’ ‘운정신도시’ ‘반구정’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이 시편들은 신앙시가 아니다. 그러나 한 달간의 기다림과 초조함이 내재한 시편들이어서 시집 이름을 그냥 『파주기행』으로 붙이고 그 기간의 과정을 기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집을 두고 필자는 ‘노령사회 노령시학’이라는 ‘의미 덧붙이기’를 시도했다. 아내의 병원생활 이야기나 노령이 아니면 감지할 수 없는 성찰이나 순교신앙 같은 것들이 시의 핵심에 들어와 있어서 시의 정서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뜻에서 ‘노령’이라는 ‘늙고 병든’ 개념이 포함된 그 기피 대상을 처음으로 스스로 ‘노령, 노령시, 노령시학’이라 하고 오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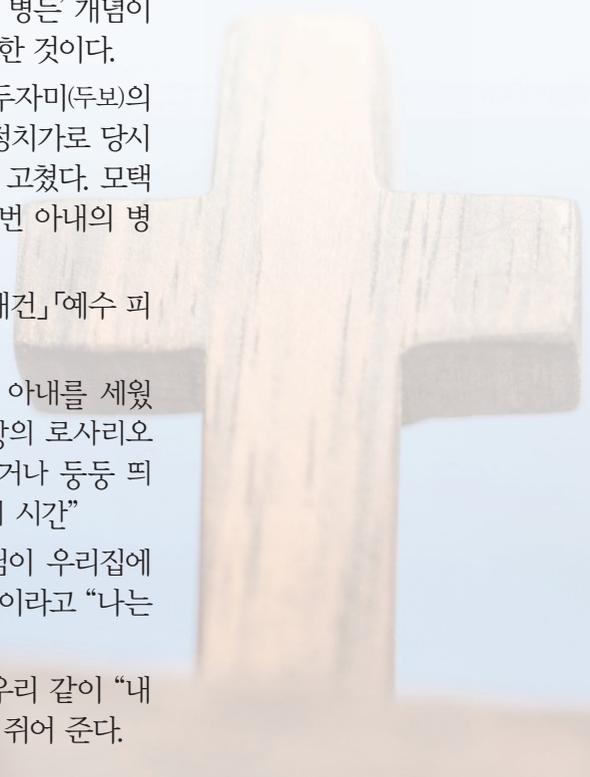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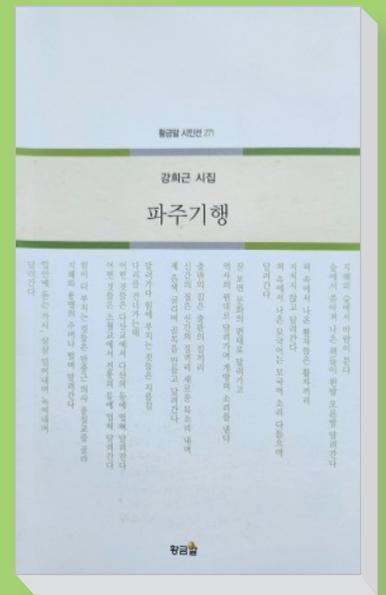
중국 동정호 여행을 하면서 악양루에 올랐는데 그 아래층에는 천하 시인 두자미(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를 모택동의 필사로 쓴 시비가 서 있다. 모택동은 시인이자 정치가로 당시 57세에 필사하면서 자신의 콤플렉스인 ‘늙고 병든’을 살짝 숨기고 ‘늙어감’으로 고쳤다. 모택동은 늙음보다 병이든 것을 애써 숨겼다. 필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번 아내의 병고에 대해 개방하고 나아가 노령시학까지 나아간 것이다.

사실이 길었다. 이 시집에는 「재의 수요일」이 빈들에 그대 서다 -순교자 김대건」 「예수 피정」 「아내의 시간」 「철제 피에타」 「직장」 「당번」 등이 신앙시편들이다.

“벼랑 하나가 우리집으로 굴러왔다/ 안개를 쓰고/ 허리를 두르고/ 그 위에 아내를 세웠다// 지금까지 별빛으로 빛났던/ 나의 아들과 딸과 손녀들, 평화와 주일과// 성당의 로사리오 마리아 주보와 거실의/ 십자가들이 흔들렸다// 벼랑은 천길이라 하지만/ 만길이거나 동동 띄우는 표류의 시간들/ 병실이 집이고 복도가 기도의 구절로 내왕하는/ 아 아내의 시간”

아내의 병으로 집과 성당과 생활이 표류하는 장소로 표현된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집에 계신다는 시편들이 쓰여 지게 된다. 내 직장이 아내라고, 내 생활당번은 오전반이라고 “나는 시간제 근무 같은 복무규정을 따지지 않는다”고 쓴다.

성 김대건은 “조선 갓끈이 내는 바람/ 라틴어체”로 살과 뼈 다 내어놓았다. 우리 같이 “내가 내놓을 시간과 자리는 ‘무슨 체’인지 「이 빈들에 그대 서다」가 사색의 고삐를 쥐어 준다.



## 2025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모집

2025학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교구 사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 12월 1일(금)까지
- 대상: 세례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서
  - 1)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부모 동의서, 본당 주임 신부 추천서
  - 2) 교적 사본, 세례 증명서, 견진 증명서, 부모의 혼인성사 증명서
  -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모(가장) 명의 제적등본, 부모(가장) 혼인관계증명서
  -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교과성적 환산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의 경우-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증명서
- 지원자 면접: 12월 3일(주일) 15:00, 교구청 3층 성소국장실
- 문의: 교구 성소국 055·249·7061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한주(마르코) 신부  
2001년 11월 21일

**교구장 서리 동정**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한국 진출 60주년 감사미사**

일시: 11월 21일(화) 15:00  
장소: 상평동성당

**본당 회장 간담회**

일시: 11월 25일(토) 10:30  
장소: 교구청

**레지아 활동발표회**

일시: 11월 25일(토) 19: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건진성사**

일시: 11월 26일(주일)  
장소: 창녕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소공동체장 연수**

일시: 11월 21일(화) 12:45/ 장소: 명서동성당

**공소지도자 연수**

일시: 11월 23일(목)~24일(금) 1박 2일  
장소: 광주대학교

**11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11월 26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3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한국 진출 60주년 감사미사**

일시: 11월 21일(화) 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055·752·7665

**젊은이 대림피정**

일시: 12월 2일(토) 14:00~3일(주일) 14:00까지(1박 2일)  
장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원주 본원  
피정비: 2만 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 (한라산 포함) 12월 8일~10일/ 12월 16일~18일/  
24년 1월 6일~8일/ 24년 1월 12일~14일/ 24년 1월  
19일~21일/ 24년 1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2024년 일정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773·1455, 064·796·4182

**1년에 읽는 구약성경(zoom)**

일시: 2024년 1월부터~12월까지 (주일) 16:00~18:00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회비: 12만 원×4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월요시국기도회**

일시: 11월 27일(월) 19:00  
장소: 사과동성당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 신부님들께서는 장백의와 <녹색연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위령미사**

<마산-그라츠>故 박기홍 몬시뇰, 故 하 마리아 선생 등 자매교구를 위해 헌신하고 선종하신 모든 분을 기억합니다.

일시: 11월 28일(화) 11:3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055·249·7016  
▶점심식사 준비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1월 20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체 신심을 성장 시키는 방법	장훈철 바오로 신부(부산교구 덕계성당 성사 담당)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한국외방선교회	10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  
2024년 1월 3일(수)~6일(토) 부산·마산교구 4일
- 해외 성지순례 모집  
2024년 1월 8일(월)~12일(금) 베르문 다당 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 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대건본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강명수(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명하(안드레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문순전(세라피나)  
총무분과위원장: 박태근(펠릭스)  
재경분과위원장: 서인석(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이영희(카타리나)  
복음화분과위원장: 함근자(글라라)  
가정·교육분과위원장: 이순연(글라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백승옥(아가다)  
지역분과위원장: 송강순(엘리사벳)  
시설분과위원장: 이종성(시몬)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성현(대건 안드레아)

**합천본당 제1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근석(시몬)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배길우(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정소옥(모니카)  
총무: 김경화(루시아)  
홍보분과위원장: 강배훈(비오)  
기획관리분과위원장: 김경미(스콜라스티카)  
복음화분과위원장: 이달연(세실리아)  
전례분과위원장: 이양득(아가다)  
청소년분과위원장: 주현선(카타리나)  
구역분과위원장: 최영옥(데레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손혜숙(에스텔)  
시설분과위원장: 류성수(요셉)

**명서동본당 제1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흥근(이시도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태오(시메온)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윤경숙(아네스)  
총무분과위원장(남성): 우수환(조카르야)  
총무분과위원장(여성): 장경미(베네딕타)  
가정·생명·생태분과위원장: 최원기(가브리엘)  
구역분과위원장: 최미자(그라시아)  
꼬미씨울단장: 박종석(우스티노)  
복음화분과위원장: 최성국(요한 보스코)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수련(루치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송선광(안드레아)  
우리농분과위원장: 송광대(레지나)  
재경분과위원장: 김영자(요셉나)  
전례분과위원장: 박건향(논나)  
청소년분과위원장: 한진우(미카엘)  
홍보분과위원장: 장소영(가타리나)

#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한 전국 성지순례 완주

김순구석 베드로(중앙동본당)

진해 중앙동본당의 부자(김순구석 베드로, 김건웅 울리오)인 저희는 약 3년여 동안 함께 우리나라 167곳의 순례를 마치고 축복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이미 일상이 되어버릴 즈음, 계속되는 미사 참여의 어려움과 본당 단체 활동의 제한 등으로 공허감을 느끼고 있던 중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본 바 모두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규칙적인 주일학교 운영과 또래들의 감소로 힘들어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이럴 때에 우리 가족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고민하던 중 몇 년 전 시작했지만 생업 등의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전국 성지순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순례를 통해 마음을 잡아보자. 인적 드문 조용한 성지를 찾아 순례하면 신심 향상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덤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다!'

그 후 우리 교구 관할에 위치한 가까운 곳부터 당일 계획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쪽의 끝 성지인 동해안의 강원도 양양성지, 서쪽의 끝인 북녘땅이 보이는 파주의 참회와 속죄의 성당, 항공편과 선박편으로 왕복한 남쪽의 끝 제주도 성지 여러 곳, 추자도의 황경한 묘 등 전국 167곳을 짧은 일정은 1박 2일, 가장 긴 일정은 8박 9일로 총 20여 차례로 나누어 다녔습니다.

이승훈 베드로 묘소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길 안내로 반대쪽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 장대비에 진흙투성이가 되어 도착하니 길이 막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던 일, 산속에 위치한 공소를 갈 때는 벌들의 습격과 가드레일 없는 좁은 외길 낭떠러지를 아들과 손 꼭 잡고 가던 일도 있었습니다. 기상 문제로 제주도에서 추자도로 들어가는 배편이 결항될까 조바심 태우던 일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교 성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따뜻한 미소,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던 신부님, 그리고 부자가 순례하는 사진은 찍어야 한다며 제 휴대폰을 달라시던 수녀님, 물 한 잔과 사탕 하나를 건네주시며 아들에게 꼭 완주하라고 외쳐주신 이름 모를 순례객분들의 마음 또한 큰 감동과 감사로 다가왔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부자를 생각해 주셨던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놀랍게도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가 즐거운 여행이 되어 우리의 신심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활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교구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소 순례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며 가까운 곳부터 용기 내어 떠나보시길 형제자매님들께 권해드립니다.

"아빠, 성지순례 책 사서 다시 한 번 가자~"라는 아이의 말에 '이번에는 아내와 딸도 같이 완주할 수 있는 즐거운 순례 여행을 계획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은 즐겁기만 합니다.



# 띠어쓰기 잘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지난 1월 이주민센터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필리핀 공동체의 한 젊은 자매가 요통과 복통을 호소하여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동행한 적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유의미한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진료 후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가족사를 듣게 되었다. 필리핀의 어느 평범한(?) 가난한 가족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10여 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며, 이 자매 홀로 집을 떠나 타국에서 돈을 벌어나며 지식을 익혀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매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큰 딸이 본국을 떠나온 가장 큰 이유였다. 2007년 23살의 나이로 얻은 첫 딸의 병명은 팔로 4징증(Tetralogy of Fallot) 이었다.

팔로 4징증은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 입구의 협착,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간벽(중격)의 구멍(결손), 대동맥의 위치가 정상보다 오른쪽에 치우침(대동맥 기승), 우심실이 비정상적으로 커짐(우심실 비대증) 등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갖고 있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1~2세까지의 사망률이 46%에 이르고, 20세까지의 사망률이 90퍼센트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으로 수술 방법도 어렵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형편에 학교도 장학금으로만 다녀야 했던 이 여인은 대학 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하다 밴드 보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전선으로 뛰어 들었다. 그때부터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챙기며 살았다.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었으나 첫아이의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곧바로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다. 맞벌이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간헐적으로 아이의 무산소 발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생겨, 일을 그만두고 아이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심장재단 등에 등록하고 아이의 심장을 고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수년이 지나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고는 큰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일해서는 아이의 병원비도, 생활비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해외시장에 목소리를 팔러 가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유명한 가수로서 큰 공연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밴드의 보컬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다른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가 아닌 공연계약서를 쓰고 호텔 라이브 밴드 바에서 가수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공연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한국 돈 1백만 원이었다. 나도 그 공연계약서를 보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숫자가 잘 못 표기된 줄 알고 말이다. 공연 때마다 손님들의 팁을 모아서 밴드 전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봉급 외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해외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며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했던 이 엄마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행히 아이의 일상생활은 지장이 있어도 무산소 발작 등의 횡수가 줄어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아이의 병이 낫지는 않을까?' 하며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아이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에서 무산소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 시작하였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5월에는 무산소 발작에 의식까지 잃고 응급실에서 비로소 다시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제 딸아이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엄마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미사에 와서 딸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주민센터장인 나에게도 딸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안쓰러웠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라 고쳐줄 수도 없고, 그저 손을 꼭 잡고 기도하겠다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의료진과 다른 일로 회의를 진행하다 우연찮게 이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치료 비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기적적이었다. 급하게 이 아이를 국내로 데리고 와서 정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한 절차가 6월부터 시작되었다. 현지 심장센터의 의무 기록을 요청하고 심장카테터 검사 등을 진행하며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입국을 위한 체류허가를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하였다. 여권을 만들면서 아이는 식여가는 것 같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고, 이주민센터는 매일 화상으로 9일 기도를 함께하였다. 온라인의 힘을 빌려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온 가족이 9일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아이의 간병을 위해 동행할 가족의 출생신고서 띠어쓰기 오류가 이 준비과정을 중단시켰다. 국내로 함께 올 수 있는 가족들 모두가 출생신고서의 띠어쓰기 한 칸이 잘 못돼서 여권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6개월... 탄원서도 만들어 보내고, 여러 공식적 요청을 했지만 필리핀 외교부의 긍정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두 달여간을 띠어쓰기 한 칸 때문에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내가 직접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 간병 등의 문제는 다시 생각하기로 결정했다. 급하게 필리핀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 했지만, 미성년자의 치료 목적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데는 현지의 복지부가 걸림돌이 되었다.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진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담긴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의료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금전적 문제가 이 아이를 16년 동안 고통스럽게 한 것인데... 사실상 출국 허가서를 받아내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띠어쓰기 문제로 시작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내 마음에 허용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가서 부탁하고, 떼를 쓰고... 결국 6시간 동안 필리핀 복지부에서의 사투(?) 끝에 허가서를 받아 한국으로 함께 들어왔다. 띠어쓰기가 잘 못 되지 않았으면 아이는 벌써 수술도 받고 회복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지금은 국내에 들어왔다. 지금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밀검사 단계에 있다. 한 아이의 생명이 띠어쓰기 한 칸의 실수로 사라질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아이가 심장병을 고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한다. 포레 친구들과 K-pop 댄스를 추고 싶단다! 이 아이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

